



우리 강아지가 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면...



내분비질환 ① 부신피질기능항진증

대형견종·암캐 세 배 이상 발생률 높아
다음다갈·다뇨·다식증... 피부변화도
과다분비 호르몬 농도 낮춰 증상 완화

개의 대표적인 내분비질환인 부신피질기능항진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일명 '개 쿠싱증후군(Canine Cushing's Syndrome)'이라고도 한다. 부신의 해부학적 위치는 신장의 앞쪽, 내측에 위치하며 신장처럼 양측에 2개가 있고, 신장보다 매우 작다. 부신피질기능항진증은 부신피질의 세포에서 클루코코르티코이드인 코티솔의 과다분비로 인해 생기는 호르몬 질환이다.

자연적인 부신피질기능항진증은 뇌하수체나 부신피질을 기원으로 하는데, 개에서는 뇌하수체 이상으로 호르몬의 양을 과다하게 분비시키는 뇌하수체 의존성 원인이 80%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10~20%는 편측성 혹은 양측성 부신피질 종양에 의해 발생된다. 또한 피부병으로 인해 장기간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했거나 갑자기 이를 중단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부작용으로 생기기도 한다. 이 질환은 다른 어떤 동물종보다 개에서 더 빈번히 발생한다. 부신피질종양

은 대형견종에서 가장 잘 발생하며 특히 암캐에서 세 배나 발생률이 더 높다. 부신피질기능항진증에 잘 걸리는 견종으로는 토이푸들, 미니어처푸들, 복서, 닥스훈트, 보스턴 테리어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보호자는 강아지가 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하루 음수량이 체중(kg)당 100ml 이상이었을 때 '다음'이라 하며, 오줌의 양이 체중(kg)당 50ml 이상이었을 때를 '다뇨'라 한다. 다음다뇨를 나타내는 질환은 대표적으로 당뇨병, 요붕증, 갑상선기능항진증, 자궁축농증, 간질성 신염, 비타민D 과잉증, 아밀로이드증 등이 있어 감별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신피질기능항진증이 있는 개의 대부분이 다음다갈증과 다뇨증의 증상을 보인다. 다식증도 빈번하다. 피부의 변화도 흔하게 나타나며 양측성 대칭성 탈모, 얇은 피부, 미용 후 느리게 자라는 털, 얇은 피부, 피부 석회증, 복부의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난다. 탈모는 뒷다리의 외측과 뒤쪽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고 다음에 몸통에서 발생한다. 머리와 사지의 끝쪽은 탈모가 발생하지 않는다. 복부는 점점 처지는데 그 이유는 근육이 약해지고 간비대와 방광의 확장으로 복부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몸이 쇠약해지고 졸음증이 나타나며 과도하게 헐떡이는 개들도 있다. 이외에 지혈장애를 동반하기도 해 멍이 잘 들며 특히, 검사를 위해 채혈을 할 때 채혈부위에 피하출혈이 잘된다.

부신피질기능항진증은 코티솔의 증가로 나타나는 질병이므로 혈중 코티솔 측정으로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코티솔 농도만으로 진단하지는 않

는다. 여러 선별검사를 실시해 원인과 진행정도를 파악해 내과적 약물치료 또는 외과적 치료를 실시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부신피질기능항진증은 질병을 치료하는 개념보다는 과다분비되는 호르몬의 농도를 낮춰 증상을 완화시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뇌하수체 의존 부신피질기능항진증(PDH)에 의해 약간의 임상증상이나 경미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는 바로 치료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경과를 지켜보면서 치료시점을 결정한다. 하지만 부신피질기능항진증은 국소적으로 침습하고 전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치료해야 한다.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몇몇의 장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포의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진단 시 여러 검사를 통해 합병증이 얼마나 동반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치료 과정에서도 합병증이 개선됐는지 또는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한다.

요로감염증이 가장 일반적인 합병증의 하나이고 몇몇 개들은 방광결석을 가지고 있다. 고혈압도 흔하게 존재하며, 당뇨병, 혈전색전증, 체장염, 전신감염, 울혈성 심부전, 거대세포종과 관련된 증상들도 발생한다.

부신피질기능항진증으로 진단된 개의 평균생존 기간은 대략 2년이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는 부신피질기능항진증과 상관없는 문제로 생을 마감한다.



강성진 가림동물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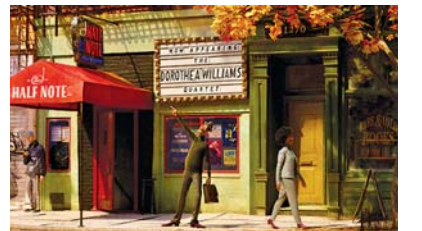
영화觀

마음은 잘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 쌀국숫집에서 급하게 저녁 식사를 했다. 일교차가 크던 봄날이었고 뜨거운 국물이 좀 필요했다. 보려고 했던 영화의 러닝타임에 맞춰서 극장 근처에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찾다가 고된 음식이 쌀국수였다. 뜨겁고, 빨리 나오는, 식당에 혼자 앉아 음식이 나올 때까지의 몇 분간을 이국적인 향취에 조금은 취했던 것 같다.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있었지만 후각보다 먼저 발동한 감각들이 있었다. 세상에 쌀국숫집에만 와도 동남아가 이렇게 가고 싶다니. 노천에서 마시던 달고한 커피, 기다란 나무 막대에 꽂힌 과일, 냉장고에서 차가운 팍을 흘리던 커다란 병맥주, 신기할 정도로 푸르고 숲이 많은 나무의 모양들. 그 비현실적인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더 재미있는 건 동남아를 삼키고 난 후였다. 한 그릇을 푹딱 비우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앞을 보니 가게 한 곳에 여행 잡지 '롤리 플래닛'이 비치돼 있었다. 뭔가 표지가 익숙해서 찬찬히 들여다보니 거기에 호주의 사막, 에이즈 락의 모습이 가득했다. 울룰루, 세상의 중심이라는 붉은 사막의 돌산. 나는 그곳에 오를 적이 있었다. 20년 전쯤 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일하던 붉은 사막의 단기 호텔리어였다. 어찌 마주친 우연에 살짝 신이 나며 웃음이 나왔다. 한 끼를 때우고자 들른 식당에서 나는 벌써 몇 개국을 여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는 모든 영화를 볼 때마다 이던가로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든다. 다녀온 곳은 그것대로 못 가 본 곳은 또 그것대로 반갑고 새로운, 두 마음 모두 그리움과 설렘을 동반하고 있다. '다시 가고 싶다'와 '한 번 가보고 싶다'의 마음을 가득 안고 이제는 극장에서 '타캣팅'이라는 동음이의어의 순간들을 새롭게 마주한다. 마스크를 쓰고 극장으로 들어가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환해질 때 인뿔삼공의 구름이 눈 앞으로 끼어드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스크린 속 낯선 인물들을 만날 때 여행이 가르쳐 준 인사의 자세를 갖



영화 '소울'

추기도 했다. 여행이 끝나는 것처럼, 엔딩 크레딧이 다 오르면 벽참과 아쉬움이 동시에 와락 밀려오기도 했고 돌아가는 길의 익숙한 동선에서는 안도를 느꼈지만 자꾸 뒤돌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한 편의 영화와 한 번의 여행은 그렇게 꽤 많이 남아 있었다.

쌀국수로 시작된 여행을 떠날 날과 그 다음날 연이어 두 편의 영화로 여행을 다녀왔다. 뉴욕과 하코다테를 일박 이일로 다녀왔는데 각기 다른 서울의 극장에서 영화 '소울'과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를 관람한 것이다. 일박 이일이 지나고 나니 두 작품 안에 각각 담긴 인생이라는 긴 시간과 청춘이라는 한 자락의 시간 또한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를 보면서는 여행으로 가 보지 못한 두 도시를 가능한 많이 느껴 보려고, 영화가 주는 우연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뉴욕에 가면 피자를 먹고 재즈 클럽에 가봐야지, 하코다테에 가면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사고, 편의점에서 비닐우산을 하나 사야지 같은 여행의 버킷리스트들을 적어 보는 건 덤이었다. 그리고 보니 마음은 이미 다녀온 것 같이 흡족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화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 추억이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가만히 마음 위로 두 손을 모았다. 그 콩다이는 마음 안에는 물리적 제약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작고 위대한 과거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나를 이리저리 보내주고 있길래 덜컥 예약도 없이 그 일등석에 앉아 끊임없이 림 서비스를 시켜 먹은 한 밤의 호사스럽고 비밀스러운 여행이었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SINCE 1989
한라일보 32주년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밝은 미소가 넘쳐나는 건강한 사회, 풍요와 여유가 있는 행복한 섬 제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제주도민의 영원한 사랑과 성원을 받는 대표신문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축협조합협의회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 강 승 호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장 김 용 관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고 권 진